

제12편 - 소사신앙촌 시대 <제3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48회)

제12편
 소사신앙촌시대 <제3부>
 一. 밀실(密室)
 二. 밀실의 역할
 三. 밀실에서 삼신일체(三神一體) 일인출(一人出)된 조희성님
 1) 아담이긴자인 구세주 후보자
 2) 사망의 신인 나라는 주체의식과 생명을 건 투쟁

三. 밀실에서 삼신일체 일인출된 조희성님

박태선 영모님은 “삼수의 원리는 하나님, 아담과 해와라고 했다.”(1982. 3말씀)
 소래산과 노고산이 마주 바라보는 장소인 밀실에서 삼신이 역할한다고 한 것은 바로 세 분 하나님, 즉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 세 분 하나님이 밀실에서 승리하시어 승리자 구세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을 예언한 말이다.

1) 아담이긴자인 구세주후보자(救世主候補者)

독실한 기독교신자인 육군 중위 조희성님은 꿈에 박태선 영모님으로부터 안찰을 받았다. 꿈속에서도 너무나 고통이 심했다. 꿈에 안찰을 받은 후 심한 폐질환이 있었던 환부와 고막이 터진 것이 깨끗이 나왔다. 그러자 안찰 받은 것을 계기로 조희성님은 영모님을 만나려고 하였다. 그래서 소사신앙촌의 영모님댁에 가서 영모님을 처음 대면하였는데 영모님은 이미 조희성님을 알고 계셨다. 박태선님은 “이미 안찰을 받으셨는데 왜 또 안찰을 받으시려고 왔습니까?”라고 하셨다. 영적으로 안찰을 하신 박태선님은 이미 조희성님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영적 엄마와 영적 아들은 처음으로 서로 하늘이 정해준 인연을 맺게 된다. 이후부터 두 분은 천지간에 아무도 모르는 연결고리로서 구세주가 성공리에 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서로 간에 총력을 기울이시게 되는 것이다.

조희성님은 소사신앙촌 C5동 4호에 입주하였다. 그러나 그곳에서 조희성님은 마귀의 칭호를 받으면서 갖은 핍박을 받게 된다. 노구산 정상에 있는 오만제단에서 예배를 보려고 하면 경비원들이 먹살을 잡고 끌어내서 사정없이 매질을 하였다. 할 수 없이 화장실에 숨어 예배를 보았다. 또 예배를 보려고 노구산에 올라가려 하면 경비원들이 노구산 제단까지 못 올라오게 하려고 돌을 마구 던져 가슴도 맞고 등도 맞곤 하였다. 그런 가운데 제단에 올라가면 먹살을 붙들고 끌고 가서 담요에 둘둘 감아서 두들겨팼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 더 열심히 매달렸다.

영적 엄마와 영적 아들의 연결고리를 끊어놓기 위한 마귀의 끈질긴 역사가 있던 것이다. 해와이긴자 후보인 홍업비 천사마귀의 당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아니 더 처참하고 지독하다. 전도관 사람들과 신앙촌 교인들이 조희성님을 마귀라고 상종을 안한다. 유일한 생명길이라고 따라 나온 전도관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 홀로 외톨이 신세가 된 것이다. 1978년 조희성님은 영적 지시를 받

고 해와 이긴자(홍업비 권사)가 있는 밀실로 가시게 된다. 그전에 처음 홍업비 해와 이긴자를 만나기 위해 대문을 들어가는 순간 바깥으로 물을 퍼붓는 것같이 시원한 생수가 쏟아부어지는 것을 느꼈다. 조희성님은 깜짝 놀랐다. 은혜받은 여인이라고 해서 별거

나라는 주체의식을 죽이기 위한 투쟁 나의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이 죽을죄 나를 죽이기 위해 반대생활 실천

있겠는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서 한번 만나나 보겠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생수은혜를 받고는 그만 깜짝 놀라서 기가 죽었다. ‘! 이 분이 보통 대단한 은혜자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홍업비 해와 이긴자앞에 무릎을 꿇고 앉고야 말았다. 그 여인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만 것이다. 돌연 해와이긴자는 “일꾼이 왔구먼!”하는 것이다. 이 말 때문에 밀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을 부러먹을 일꾼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여 노상 조희성님에게 일을 시켜 막는 것이다.

사실 해와이긴자가 ‘일꾼이 왔다’고 한 것은 하늘의 일꾼인 구세주 후보자를 말한 것이지만 아무도 그와 같은 깊은 영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2) 사망의 신인 나라는 주체의식과 생명을 건 투쟁

이미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6000년 간 하나님께서 구세주 정도령님으로 예정해놓고 키우시던 조희성님을 다듬어 세우시기 위하여 마지막 연단과 정으로 들어 보내신 곳이 밀실(密室)이다. 밀실에서의 조희성님의 연단은 생명을 내건 투쟁이었다. 이곳에서 나

라고 하는 주체의식이 선악과요 사망의 신임을 인류 역사 이래 처음 깨우친 조희성님은 이를 멸하고 승리하시어 인류를 위한 영생의 대도를 여신 것이다.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이 선악과요 사망의 신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이 속절없이 죽어갔던 것이다. 이 문제는 하나님도 모르셨다. 그런 것을 조희성님이 생명체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원인이 나라라는 주체의식임을 깨우치셨는데 이 문제는 마귀의 최대의 비밀이었던 것이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마귀의 극비의 무기를 들고, 마귀는 인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면서도 죽어 천당에 간다고 또는 지옥에 간다고 속여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마귀의 최대의 비밀의 무기를 조희성님은 밀실에서 마귀의 심

장부를 뚫고 들어가서 마귀의 극비에 속한 최대의 무기를 간파하시고 대각(大覺)을 이루신 것이다. 그리고 마귀의 극비의 무기이며 사망의 영인 나라는 주체의식을 멸하고 인류를 영원히 사망에서 해방을 시켜 영생을 주시기 위한 생명을 건 투쟁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조희성님이 죽음의 영인 나라라는 주체의식을 멸하시기 위하여 어떤 투쟁을 하셨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가) 반대생활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이 선악과요 사망의 영임을 깨치신 조희성님은 이를 멸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셨다.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이 사망의 영인 마귀라면 내가 생각하고 마음먹는 것이 다 마귀의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생각하고 마음먹는 것에 무조건 반대로 움직이기로 결심하셨다. 그래서 조희성님은 나를 죽이기 위한 반대생활을 하기 시작하셨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사망의 신이 시키는 것이므로 다 죽을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각의 반대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일을 하기 싫으면 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싶으면 일부로 배가 고파도 안 먹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일부로 맛있는 썸바귀를 먹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다.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영이 무엇임을 안 이상 그것을 철저히 멸하여

없애려고 하는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반대생활은 결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

나) 맡기는 생활

처음 밀실에 들어갔을 때 해와이긴자가 열심히 기도를 하라는 것이다. 조희성님은 열심히 기도를 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해와이긴자는 “기도를 하나도 안했군”하시는 것이다. 다음에는 더욱 열심히 기도를 하셨다. 그러나 해와이긴자는 똑같이 “왜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데 기도를 안하느냐?”고 야단을 치시는 것이다. 조희성님은 고민에 빠졌다. 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안 했다고 야단을 치시는 것일까? 고민고민 끝에 정답을 얻었다. 바로 나라고 하는 자아(自我)가 기도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날부터는 기도 방법을 바꾸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해와이긴자는 “이제야 기도를 좀 했군!”하시는 것이다. 그제야 조희성님은 내가 하는 기도는 기도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오시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시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 일이 있는 후부터는 조희성님은 나라라는 것이 마귀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어 나를 죽이는 투쟁을 생명을 걸고 하시기 시작한 것이다.*

격암유록 新 해설 제24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영생을 얻으나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죽으리라

聖山壽路(二) 성산심로

勿犯世俗夜鬼發動 물범세속야귀발동
 罪惡滿天 죄악만천
 善者得生惡者永滅 선자득생악자영멸
 當于末世善人幾何 당우말세선인기하
 世人不覺嗚呼悲哉 세인불각오호비제
 依外背內一 怨無心 의외배내일무심
 玄妙精通誰可知 현묘정통수가지
 誤求兩白負薪入火 오구양백부신입화

세상의 속된 일(선정, 쾌락, 물욕 등)에 빠지지 말라. 야귀가 발동하여 죄악이 하늘에 가득하도록.

선한 사람은 영생을 얻고 악한 자는 영원히 멸망당하리라. 말세를 당하여 선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리라.

오호! 슬프다. 밖을 의지하고 안을 등지면 죽으리라. 자신 속의 옛사람을 죽이고 진리를 깨달아 행하여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일(내면세계의 충실함)에는 아랑 곳 않고 오직 외부세계의 속된 일(선정, 쾌락, 물욕 등)에 빠지게 되면 죽으리라.

참된 도인은 외부세계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다. 오직 구세주 하나님(정도령, 미륵부처님)을 마음에 모시는 일 뿐이다.

천지의 현묘한 이치를 세밀하게 통달한 그분을 누가 가히 알겠는가? 양백을 잘못 구하면 쇠를 지고 불로 뛰어

드는 격이 되리라.

求弓三豐不飢長生 구궁삼풍불기장생
 求地三豐食者不生 구지삼풍식자불생
 求地者不生不得 구정지자평생부득
 求地天三七滿足 구정어천삼칠만족
 一心祈禱天有應答 일심기도천유응답
 無誠無智不得勝地 무성무지부득승지
 地不逢國王 지불봉정왕
 求世海印不見之影 구세해인불견지영
 求天海印皆入極樂 구천해인개입극락

궁공의 이치에서 삼풍을 구하여 먹으면 굶주림이 없이 장생할 수 있지만 땅에서 삼풍을 구하여 먹으려는 자는 죽으리라.

정도령을 땅(의 이치)에서 찾으면 평생을 두고도 찾지 못하며 정도령을 하늘(의 이치)에서 찾는 사람은 삼칠(3+7=10) 즉 십승인을 찾음으로 만족하리라.

일심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응답이 있느니라. 정성도 없고 지혜도 없으면 기도가 통하지 않으며 십승지의 이치도 깨닫지 못하고 십승지도 얻지 못하리라.

땅(지리地理)에서는 정시 왕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인간 세상에서 해인을 구하려 한다면 해인의 그림자도 보지 못하리라.

하늘(천리天理)에서 해인을 구하면

사람마다 모두 극락으로 들어가리라.

求地田田平生難得 구지전전평생난득
 求道田田無難易得 구도전전무난이득
 求地十勝異端之說 구지십승이단지설
 求地弓弓一人不得 구지궁궁일인부득
 求靈弓弓人如反掌 구령궁궁인여반장
 十勝覺理一字縱橫 십승각리일자종횡
 求十弓乙延年益壽 구십궁을연년익수
 十勝居人 십승거인
 入於永樂萬無一失 입어영락만무일실
 心覺心覺貧者得生 심각심각빈자득생
 富者不得虛中有實 부자부득허중유실

땅에서 전전(田田)을 구하면 평생토록 얻기 어려우며 도에서 전전을 구하면 어려움 없이 쉽게 얻게 되리라. 땅에서 십승(지리상의 십승)을 구한다는 것은 사이비 이단의 말인 즉 땅에서 궁공(십승)을 구하면 한 사람도 얻지 못할 것이요 영적인 이치로 궁공을 구하면 손바닥을 뒤집듯 쉬운 일이나.

십승을 깨닫는 이치는 일(一)자를 가로 세로로 한 십(十)자에 있느니라. 궁에서 십승을 찾으면 해가 갈수록 수명을 더하게 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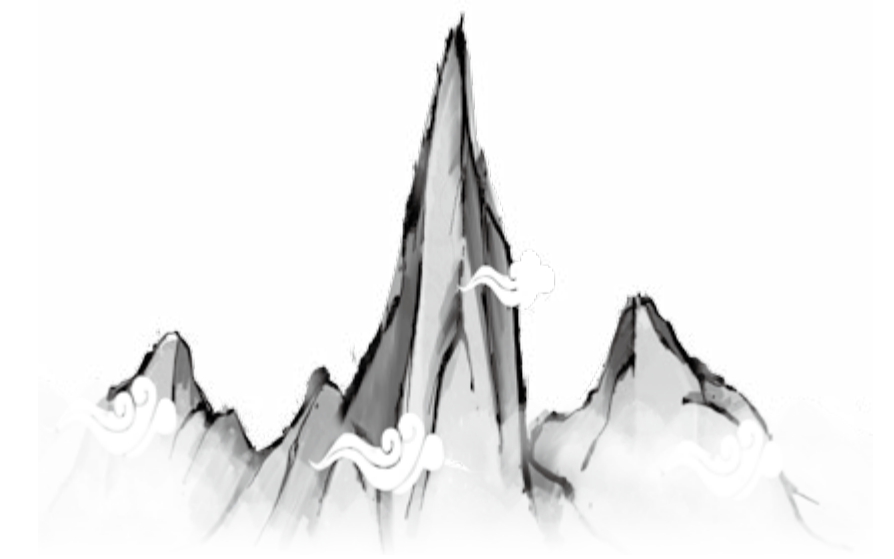
내 몸속에 십승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거하게 된 사람(십승 하나님을 온전히 모신 사람)은 영원한 극락에 들어가는 것을 만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느니라. 마음 깊이 깨달을지라 마음 깊이 깨달을지라.

마음이 가난한 자나를 낮추고 마음을 비운 자는 영생을 얻으나 마음속에 욕심(물욕, 음욕 등)이 가득한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허(虛) 중에 실(實)이 있음이니라.

聖山水泉藥之又藥 성산수천약지우약
 一飲延壽飲之又飲 일음연수음지우음
 不死永生 불사영생
 聖泉何在 南鮮平川 성천하재남성평천
 紫霞島中萬姓有處 자하도중만성유처
 福地桃源仁富壽 복지도원인부심
 入山雖好不如西湖 입산수호불여서호
 東山雖良不如路邊 동산수량불여로변
 多人往來大之邊 다인왕래대지변
 天藏地祕吉星照 천장지비길성조
 桂樹範林之上 계수범박지상
 蘇萊老姑兩山相望稱坐山
 소래노고양산상망희좌산

성산의 샘물은 약 중의 묘약이라 한번 마시면 목숨이 늘어나고 마시고 또 마시면 불사영생하리라.

성산의 샘물은 어디에 있는가? 남조선(대한민국) 부평 인천 사이에 있느니라. 그곳은 신선이 노니는 보랏빛 노을이 감도는 반도의 가운데에 있으며 온갖 성(姓)바지들이 모인 복된 땅이니라. 인천 부평 부천사이에 있으며 예로부터 복사 골로 알려진 곳이니 그곳을 찾아가면 성산의 샘물을 찾으리라. 입산하는 것이 비록 좋다하나 서호



를 찾는 것보다 못하고 동산이 비록 좋으나 길가보다는 못하니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대로변에 있는 복사골의 소사로 찾아와야 하리라.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긴 길한 별이 비추는 소사의 계수 범박 위쪽에 소래산과 노고산이 희한하게 마주보고 있도다.*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부)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홈페이지 www.victor.or.kr **홈페이지** www.victor.or.kr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